

엄격함 내려놓은 사찰...MZ세대 “편안함에 힐링 절로~”

부처님 오신 날 맞아 순천 선암사 템플스테이 해보니

휴대전화 압수 안하고 승려 식사법 따르지 않아도 되고 차담·새벽 예불·트레킹 등 다채...참여의무 없이 자유로워
코로나 이후 회복세 지난해 43만명 참여...연령층 낮아져

부처님 오신날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오후 3시께 순천 선암사에는 ‘템플스테이’(Temple stay)를 위해 찾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템플스테이는 도심 속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며칠동안 사찰에서 일상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한때 크게 유행했지만,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다소 주춤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난 올해 다시 사찰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MZ세대들의 특성 등을 고려해 템플스테이가 변화하고 있는 것도 발길을 끌고 하는 이유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하룻밤 묵은 선암사 대웅전 인근에 마련된 템플스테이 숙소도 힐링을 목적으로 찾은 이들로 가득했다.

이날 선암사 템플스테이는 ‘휴식형’으로 이뤄졌다. 산사에서 저렴한 비용(성인 1박 5만원)으로 짧게는 하루, 길게는 며칠간 묵으며 사찰 문화를 알아가고 힐링과 자아성찰 등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과거와 같다.

하지만 ‘숙제와 단절’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일시 압수하거나 발우공양(승려들이 식사하는 것)과 비슷하게 밥을 단무지로 묶어 먹는 등 비교적 엄격한 느낌의 과거 템플스테이와는 달리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변화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젊은 층에게도 템플스테이가 인기라고 선암사 관계자가 귀띔해 왔다.

오후 3시께 템플스테이에 입실하면 가장 먼저 조끼와 긴 바지 형태의 회색의 템플복과 고무신을 지급받는다.

이후 숙소를 안내 받는다. 대웅전 인근에 마련된 템플스테이 숙소는 여성과 남성용으로 구분돼 있었다. 공간마다 1인실부터 5인실까지 다양하며 60세 이하 부부나 커플이 방문할 경우 각방을 써야 한다.

해설사와 함께 대웅전을 시작으로 절을 한 바퀴 돌며 합장 예절과 예불 방법, 식사 시 지켜야 할 예절 등 사찰 공부를 한다. 참가자들 모두 새롭게 배우는 사찰에 대해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오후 5시부터는 적묵당(식당)에서 공양(식사)을 하고, 저녁 예불과 스님과의 차담(茶談)을 진행한다.

‘심검당’에서 이뤄지는 차담에서는 스님이 직접 차를 내려 참가자들에게 건네며 생활속 필요한 조언을 전한다. 이날 차담을 진행한 등명스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과 몸이 함께 해야 근심 걱정이 없다. 내키지 않는 일을 하면 몸이 따라주지 않기 마련”이라고 조언했다.

스님들이 밤 9시부터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오후 8시 30분 이후 숙소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내부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다음날 일정은 새벽 3시 40분 새벽 예불로 시작된다. 절을 30번 넘게 해야 하는 강행군이지만 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에는 27일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플스테이에서만 체험해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라 이른 새벽부터 눈을 뜬 이들이 적지 않았다. 새벽 5시 50분부터 식사가 이뤄지고 오전에는 편백 숲 트레킹을 이어간다. 퇴실은 낮 12시다.

참가자는 이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 할 필요가 없다. 이날도 한 참가자는 사찰의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참가자들의 호응도 좋았다. 일상에서 멀리 떠나온 산사에서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한 하루 보낼 수 있어 마음 속 체증이 가라앉는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같은 목소리다.

정음에서 딸과 함께 템플스테이를 온 오정숙(여

·54)씨는 “생각했던 것보다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만족스러웠다. 절밥은 맛이 없을 거란 생각과 달리 반찬 가짓수도 많고 맛도 있어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에서 조금 떨어져 공기 좋고 물소리, 새소리 들리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니 마음과 몸이 편안해진 느낌”이라고 웃어보였다.

울산에서 온 이대겸(42)씨는 1년에 두번정도 템플스테이를 하는데, 이날은 특별히 반차를 쓰고 연휴를 맞아 먼 길을 달려왔다.

이씨는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이렇게 템플스테이를 한다. 차담을 나누다보면 스님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며 “방에 방음이 되지 않

는데, 내 소음을 의식하다 보니 오히려 스스로의 행동거지를 의식하게 되고 차분하게 행동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에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찰은 총 27곳으로, 전남이 2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는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23만여명, 2021년 25만여명이었지만 지난해 들어 43만여명으로 회복했다. 2002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템플스테이 누적 참가자 수는 644만여명이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버스킹 월드컵’ 이름값

55개국 792팀 1732명 신청
해외 참가팀 전년비 두배 늘어

광주시 동구는 최근 ‘제2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세계 55개국 792팀 1732명이 참가 신청서를 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동구는 지난 4월 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국내·외 오디션 참가자를 모집했는데, 그 결과 해외 부르키나파소·이란·키르기스스탄·아제르바이잔 등 54개국 299팀 및 국내 493팀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는 국내 참가팀이 지난해(388팀)보다 100여개 팀이 늘었으며, 해외 참가팀도 지난해(151팀)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동구는 별도로 위촉한 심사위원단에 참가자들이 제출한 공연 동영상을 전달하고, 예술성·독창성·참신성·무대 매너 등 평가를 거쳐 오는 6월 21일 본선에 진출할 64팀을 발표할 예정이다.

본선은 오는 10월 2일 환영식을 시작으로 10월 3-6일 5·18민주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등 4개 무대에서 라이브 공연으로 진행된다. 결선은 10월 7일 최종 선발된 8팀끼리 라이브 토너먼트를 벌이는 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5000만원이 지급되며, 2등은 상금 2000만원, 3등은 상금 1000만원을 받게 된다.

동구는 해외 팀에게는 항공권 등을 제공하고 국내 팀에게는 참가활동비 및 내년 해외 공연 참여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광주 버스킹 월드컵’은 규모 자체도 커지고 참가국과 지원자가 다양해졌다”면서 “국내·외 뮤지션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재능 넘치는 뮤지션들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세계적 거리 음악 축제가 되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송정역 주차빌딩 31일 개장
1580면...1일 이용권 1만5천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31일 오전 9시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광주송정역 주차빌딩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 주차빌딩은 광주송정역 옛 제2주차장 자리에 7층 규모의 주차타워로 총 주차면수는 1580면이다. 주차 공간은 일반형 882면, 확장형 494면, 장애인용 48면, 경차전용 156면 등으로 구분해 조성했다.

이용요금은 기본 30분에 1500원, 10분당 5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되며 1일 이용권은 1만 5000원이다. 열차 이용객은 30%, 경차·친환경차·장애인·유공자는 5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차장 내에는 요금 사전정산기와 LED 안내 전광판, 실시간 주차 현황판도 설치돼 있다. 코레일은 주차장 내·외부에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진입로 신호호주기를 조정하는 등 방법으로 차량 진출입을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교육청,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 추진
31일 교육부에 신청서 제출

광주교육청이 광주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

29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와 함께 광산구를 제3기(2023-2027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31일 교육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지정하는 교육국제화특구는 외국어 교육·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시교육청은 자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맞물려 광산구가 다양한 세계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에는 광주 외국인공동체를 대표하는 고려인마을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주외국인 2만2859명이 살고 있다.

교육부의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학생·교직원 대상으로 추진중인 시교육청의 국제교류사업

과 일치하는 점도 고려됐다.

핵심사업은 세계 시민 양성형, 글로벌 교원 육성형, 해외 인재 유치형 등이다.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학교 외에 특수목적고와 이 법에 의한 공립학교를 자율로 지정할 수 있다.

외국어 전용 지구, 국제교류시설 등 교육 국제화 기반 시설도 구축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26일 광주시, 광산구와 공동으로 주민, 학부모, 교원 대상 공청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심사를 거쳐 6월 말께 최종 교육국제화특구 지역을 확정한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광주 학생들이 민주·인권·평화, 문화 다양성 등의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